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조선후기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의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

한 승 훈**

1. 조선후기 진인출현설에서의 공간과 장소
2. 공간화된 메시아니즘: 장소를 둘러싼 투쟁
3. 책의 메시아니즘: 종말론적 집단심성의 형성
4. 다양한 메시아니즘: 장소에 대한 전략들
5. 결론: 호국의 지도와 혁세의 지도

1. 조선후기 진인출현설에서의 공간과 장소

조선후기의 종교적 비밀결사들과 역모사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당, 승려, 술사 등의 참여, 점복과 예언의 중시, 종말론적으로 이해된 미륵신앙과 후천개벽, 신비주의적 환상을 동반한 신적 존재들의 개입에 대한 믿음 등의 요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서 가장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종교적 모티브는 신인(神人), 성인(聖人), 생불(生佛) 등으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진인(眞人)으로 불리었던 메시아적 인물(messianic figure)이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진인출현(眞人出現)의 예언이었다.¹⁾ 그 기본적인 골격은 진인

* 이 논문은 2014년 7월 16일에 “제3회 우송 한국학 서울대-미시간대 한국학 신진연구자 킷 퍼런스”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1) 한국의 ‘진인’에 대해 유대-그리스도교적 개념에서 비롯한 메시아(messiah)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대묵시문학에서 메시아는 예언된 미래의 왕인 동시에, 황금시대를 가져올 초월적인 구원자이다. 또한 후기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의 등장을 주장하는 반란 사건과 종교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유대-그리스도교적 맥락을 넘어, 이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인물의 등장에 대한 기대를 일반적으로 ‘메시아니즘(messianism)’이라고 부르고 있다. (Helmer Ringgren, “Messianism: an overview” in

(많은 경우 정씨)이 새로운 수도(많은 경우 계룡산)를 건설할 것이라는 단순한 내용이다. 일찍이 최남선이 “광해군·인조 이후로 모든 혁명 운동에는 예외 없이 정씨와 계룡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고 지적하였듯이, 17세기 이후 역모사건의 대다수는 이 진인출현설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²⁾ 그리고 18세기 이후로는 진인출현설을 담은 도참비기(圖讖秘記)들이 등장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³⁾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에 대해서는 근대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진인출현설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종교운동이나 반체제운동이 20세기 초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 정책적인 관심과도 이어지는 문제였다.⁴⁾ 이능화와 최남선 등 초기 연구자는 진인출현설을 대표적인 도참비기인 『정감록(鄭鑑錄)』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정감록신앙’이라는 개념을 유행시켰다.⁵⁾ 이능화는 시천교(侍天教), 보천교(普天教) 등 당시 신종교들의 계룡산 신도(新都) 운동을 논하면서, 진인출현설과 관련된 9건의 조선시대 역모사건 자료들을 망라하였다.⁶⁾ 최남선은 진인출현설을 조선후기에 “혁명운동의 필요에 의해 자료를 민간신앙 쪽에서 취하여” 형성된 사상으로 파악하며, 이를 이상세계에 대한 고유의 관념인 ‘남조선(南朝鮮)신앙’과 연결지었다.⁷⁾ 또한 1980년대 이후 역사학에서는 의금부의 심문 기록인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 등 1차 문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진인출현설에 기반을 둔 역모사건에 대한 상당한 양의 사례 연구가 축적되었다.⁸⁾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9,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5972-5974.)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의 진인 담론이 가지는 구원자적 측면과 정치적, 군사적 측면을 포괄하기 위해 이 범주를 적용하겠다.

- 2) 최남선, 『조선상식문답』(서울: 동명사, 1946), 112.
- 3) 『정감록』을 비롯한 도참비기들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다. 그러나 진인출현설을 담은 특정한 양식의 텍스트들은 18세기 이후의 산물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4)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에 의해 작성된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의 占卜と 豫言)』에서 무라야마는 진인출현설을 이용하는 신종교단체들과 비밀결사들, 그리고 당시 대중에 널리 퍼진 관련 유언비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村山智順, 『朝鮮의 占卜と 豫言』,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昭和8[1933], 654-663 참조)
- 5) 이 용어의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6)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京城[서울]: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18-31).
- 7)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111-116.
- 8)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정석중, 고성훈, 백승중, 김우철 등이 있다.

해방 이후 종교학에서 조선후기 진인출현설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장병길과 황선명의 연구는 특기할 만하다. 장병길은 아마도 ‘진인신앙(眞人信仰)’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최초의 연구자일 것이다. 그는 이를 사회의 이변 속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민간 신앙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 그 고대로부터 현대의 신종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서술하였다. 특히 기존 도참비기의 왕도신앙(王都信仰)이 진인의 출현에 의한 신도신앙(新都信仰)으로 발전하는 국면을 지적한 것은 중요하다.⁹⁾

한편 ‘민중종교운동’이라는 범주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황선명은 왕조 멸망에 대한 조선후기 민중의 대망을 “감결(鑑訣), 비기(秘記), 참위(讖緯) 내지 정감록 신앙”이라 규정하였다. 황선명의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도참비기를 둘러싼 조선후기의 실천에 십승지(十勝地)로의 소극적 도피와 진인출현을 실현하려는 민중운동의 양면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남선이 제안한 ‘남조선신앙’ 개념에 주목하면서 진인출현설이 가진 ‘공간’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¹⁰⁾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되었던 진인출현설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면서 그 종교사적 특성과 의의를 구체화하려고 한다.¹¹⁾ 이를 위해 첫 장에서는 고려시대 이후의 풍수와 도참에서 강조되었던 종교적 공간 개념이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런 공간 인식을 대중화한 조선후기의 도참비기가 어떤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논하며 이것이 이 시기의 집단심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진인출현설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을 살피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논하겠다.

9) 장병길, 「정감록과 진인신앙: 한국에 있어서의 메시아니즘」, 『세대』 1965. 2.

10)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서울: 종로서적, 1980, pp. 193-197;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5, 274-283.

11)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종종 혼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지리상의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며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는 ‘장소’를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공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두 개념과 관련된 인문지리학에서의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2. 공간화된 메시아니즘: 장소를 둘러싼 투쟁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을 나말여초(羅末麗初)와 여말선초(麗末鮮初),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진(秦)·한(漢)대 이래 왕조교체기에 동원되어 왔던 도참설(圖讖說) 또는 참위설(讖緯說)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왕조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천명(天命)이 혁명 세력에게 주어졌다는 유력한 상서(祥瑞)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그런데 도참신앙에는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천도(遷都)’에 대한 예언이 그것이다.

궁예(弓裔)는 송악(松岳)에 고려(高麗)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도읍을 송악(松岳)에서 철원(鐵原)으로 옮겼는데, 왕건(王建)이 즉위 후 내린 교서에 의하면 이것은 “참위를 믿어” 이루어진 일이었다.¹²⁾ 또한 왕건의 정변 당시에 등장했다고 하는 「고경참문(古鏡讖文)」에서는, “사년(巳年)에 두 마리 용(龍)이 나타나니, 하나는 청목(靑木) 가운데 몸을 숨길 것이고 하나는 흑금(黑金)의 동쪽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다.¹³⁾ 왕건의 지지세력들은 ‘청목’을 송악으로, ‘흑금’을 철원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곧 철원의 왕인 궁예의 몰락과 송악을 기반으로 하는 왕건의 집권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왕건은 즉위 이듬해에 즉각 다시 송악으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왕건의 운명을 특정한 ‘장소’와 연결시키는 담론은 왕조교체기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다. 고려 정종(定宗)은 서경(西京) 평양(平壤)에 왕성을 쌓고 천도를 계획했는데, 이 또한 ‘도참’에 따른 것이었다.¹⁴⁾ 공양왕(恭讓王) 또한 ‘참위설’을 믿고 한양(漢陽)으로의 천도를 추진했다. 그가 읽었던 비록(秘錄)에는 “만약 옮기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苟不遷, 廢君臣).”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천도설의 배후에는 정치적, 전략적인 고려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함의 배경에는 중요한 종교적 논리체계 또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왕기(王氣)에 대한 관념이다. 이것은 왕도(王都)에 머무는 제왕의 기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고전적인 용례는 오늘날의 난징(南京)에 왕기가 있다는 금릉왕기설(金陵王氣說)이라는 전승이다.¹⁵⁾ 문헌상 이 전

12) 『高麗史』 권1,太祖 원년(918) 8월 辛亥(11일).

13) 『高麗史』 권1,太祖, “於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一則現形黑金東.”

14) 『高麗史』 권2,定宗 4년(949) 3월 丙辰(13일), “初以圖讖, 決議移都西京.”

승은 이곳으로의 천도를 제안했던 삼국시대 동오(東吳)의 장굉(張紘)의 진언에 등장한다.

말릉(秣陵)은 초(楚)의 무왕(武王)이 세우고 이름을 금릉(金陵)이라고 하였습니니다. 지세를 보면 언덕이 석두(石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옛날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을 하다 이 고을을 지나갔는데, 기를 보는 사람이 금릉의 지형에 ‘왕이 도읍을 세울 기(王者都邑之氣)’가 있다고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이어진 언덕을 파내어 자르고는 이름을 말릉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거처할 곳이 모두 갖 추어져 있고 땅에는 그 기운이 있으니 하늘이 명한 바입니다. 마땅히 도읍으로 삼아야 합니다.¹⁶⁾

금릉에 왕기가 있다는 전승은 이후에도 이어져 강남을 거점으로 하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남경을 도읍으로 삼는 전거가 되었으며, 다른 도읍지들 역시 ‘왕기’ 혹은 ‘천자기(天子氣)’가 머무는 곳으로 묘사되었다.¹⁷⁾ 고려 및 조선의 문헌들에서도 왕기에 대해 논할 때에는 종종 ‘금릉’, ‘석두’의 고사가 언급되곤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왕기에 대해 특히 강조되어 온 관념이 있다. 왕기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된다는 이른바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이 그것이다.

일례로 묘청(妙淸), 정지상(鄭知常), 백수한(白壽翰) 등이 서경으로의 천도를 추진할 때 내세운 명분은 “상경(上京: 수도)의 기업(基業)이 이미 쇠진하여 궁궐이 남김없이 타버렸는데, 서경에는 왕기가 있으니 옮겨가 상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15) 이 외에도 ‘왕기’라는 말에는 음택풍수(陰宅風水)적인 관점에서 후손 가운데 왕자(王者)가 태어날 만한 길지의 기운을 가리키는 용법도 있으나,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16) 『三國志』 권53, 張嚴程闕薛傳, “秣陵, 楚武王所置, 名為金陵。地勢岡阜連石頭。訪問故老云, 昔秦始皇東巡會稽經此縣, 望氣者云金陵地形有王者都邑之氣。故掘斷連岡, 改名秣陵。今處所具存, 地有其氣, 天之所命。宜為都邑。”

17) 蔣少华, 「金陵王气的历史回音」(『寻根』 2011/4, 2011), 90-92. 그보다 이전 문헌인 『사기』의 「고조본기」에는 동남쪽에 ‘천자기(天子氣)’가 있다는 술사의 말을 듣고 시황제가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 순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史記』 권8, 高祖本紀 “秦始皇帝常曰, ‘東南有天子氣’, 於是因東游以厭之.”) 이 이야기는 후대 ‘금릉왕기설’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조본기」의 맥락에서 ‘천자기’는 유방(劉邦)을 따라다니는 기운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 아직 특정한 장소와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금릉왕기설’처럼 후대까지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후한 말의 술사 동부(董扶)가 유언(劉焉)에게 익주(益州)에 ‘천자기’가 있다고 하면서 촉(蜀)으로 부임하기를 권했다는 기록도 있다. 훗날 이는 촉한(蜀漢)의 건국을 예언하는 일화로 받아들여졌다. (『後漢書』 권82下, 方術列傳) 이 두 사례를 통해 장소와 왕기를 연결시키는 담론은 후한 말에 이르러 유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것이였다.¹⁸⁾ 또한 고려 고종(高宗)은 1217년에 죽관궁(竹反宮)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것은 “송악산은 왕기가 소진될 것이니 별궁에 머물며 기양(祈禳)해야 한다.”는 술사(術士)의 말에 따른 것이였다.¹⁹⁾ 고려 말 공양왕 때의 술사들도 “위로는 천재(天災)가 자주 나타나고 아래로는 지괴(地怪)가 매번 일어나는데 이는 모두 지덕(地德)이 쇠한 탓”이라고 주장하며 남경(한양)으로의 천도를 주장하였다.²⁰⁾ 비슷한 주장은 조선 광해군(光海君) 때에도 반복된다. 1612년 술사 이의신(李懿信)은 한양의 왕기가 다하였고 교하(交河)에 왕기가 있으니 천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이 상소문 자체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예조(禮曹)의 반박문과 국왕의 답변에 따르면 이의신은 임진왜란의 발생, 도성 주위 산들에 나무가 없어진 것, 반역사건이 일어나는 것 등이 모두 한양의 왕기가 다했기 때문이라 주장한 듯하다.²¹⁾

왕기의 소진은 왕조의 쇠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실제로 천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례적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왕기가 소진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고려 고종은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옷을 남경의 가궐(假闕)에 두었다. 이것은 한양에 궁궐을 짓고 왕이 머무르면 왕조가 800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²²⁾ 광해군 역시 교하로의 천도가 좌절되자 인왕산 아래에 궁을 건설하였다. 이 또한 왕이 그곳에 살면 국가의 역수(曆數)를 연장할 수 있다는 술승(術僧) 성지(性智)의 의견에 따른 것이였다.²³⁾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왕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풍수(風水)에 능한 술사와 승려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 및 천도에 도선(道詵), 무학(無學)과 같은 술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그 좋은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왕기가 왕성한 곳으로 천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례적 행위를 하는 것이 멸망할 운명인 왕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왕도의 왕기가 쇠진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반란, 전쟁 등이 일어

18) 『高麗史』 권127, 妙清, “上京基業已衰, 宮闕燒盡無餘, 西京有王氣, 宜移御爲上京.”

19) 『高麗史』 권22, 高宗 4년(1217) 4월 己酉(3일), “松山王氣將盡, 宜御別宮以禳之.”

20) 『高麗史』 권45 恭讓王 2년(1390) 12월 乙亥(17일), “天災屢見於上, 地怪每興於下, 此皆地德之衰. 巡幸南京, 則禍可地也.”

21) 『光海君日記(중초본)』 권59, 光海 4년(1612) 11월 乙巳(15일).

22) 『高麗史』 권23, 高宗 21년(1234) 7월 甲子(27일), “自扶疎山 分爲左蘇, 曰阿思達, 是古楊州之地. 若於此地, 營宮闕而御之, 則國祚可延八百年.”

23)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01, 光海 8년(1616) 3월 甲午(24일), “仁王山石山突起甚奇, 又仁王二字, 乃是吉讖. 若王者居之, 曆數可延而太平可興.”

나는 특수한 위기상황들이다. 평시에 왕기론은 왕도의 신성함과 왕조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레토릭의 일부로 이용된다.²⁴⁾ 어느 쪽이든, 술사들은 왕조의 번영과 운명의 연장을 위한 종교적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술사들이 설득하고자 했던 대상은 왕이나 집권계층만이 아니었다. 도성의 왕기가 소모되었고 다른 장소에 왕기가 있다면, 그 장소를 획득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역모사건 자료와 도참비기에서는 왕기에 대한 그런 방식의 이해가 나타난다. 1589년 기축 옥사(己丑獄死)에 대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정여립과 공모했던 승려 의연(義衍)이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트렸다고 한다. “내가 요동에 있을 때 조선을 바라보니 왕기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살펴보니 왕기는 전주(全州)의 동문(東門) 밖에 있었다.”²⁵⁾ 왕기가 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있다는 것은 명백히 반란을 선동하는 주장이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계룡산’에 ‘정씨’가 도읍할 것이라는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진인출현설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사건이기 때문이다.²⁶⁾

이보다 백여 년 전에 민간에는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날 것”이라는 참언이 있었다.²⁷⁾

국초(國初) 이래로 예언의 말이 있었다. “연산현(連山縣) 계룡산(鷄龍山) 개태사(開泰寺) 터는 (이씨 왕조 이후의) 다른 시대에 정씨가 도읍으로 삼을 곳이다.”²⁸⁾

24) 전근대의 많은 사회에서 수도는 문화적 중심지이자 우주의 중심지인 성스러운 장소라고 믿어졌다. 특히 조선의 왕도 한양의 신성성에 대한 담론들은 한국종교연구에서 종종 지적되어 왔다.(김종서, 「서울 문화의 종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1], 1986; 최종성, 「조선시대 왕도의 신성화와 무속문화의 추이-법제를 통한 淫祀정책과 서울에 대한 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1, 2003] 참조)

25) 『宣祖修正實錄』 권23, 宣祖 22년(1589) 10월 乙亥(1일), “余在遼東時, 望朝鮮, 有王氣, 及來朝鮮候之, 則王氣在全州東門外”

26) 단, 이 기사가 선조 사후 즉시 편찬되었던 『선조실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선조수정실록』에만 나타난다는 점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 시기에는 이미 진인출현설을 내세우는 역모 사건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여립의 역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7) 『宣祖修正實錄』 권23, 宣祖 22년(1589) 10월 乙亥(1일), “先是百餘年, 民間有木子亡, 奠邑興之讖.”

28) 『宣祖修正實錄』 권23, 宣祖 22년(1589) 10월 乙亥(1일), “自國初以來, 有讖說, 連山縣鷄龍山開泰寺基, 乃他代鄭氏所都.”

이와 같은 담론은 왕도를 이전하여 국운(國運)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장과는 다르다. 새로운 장소를 도읍으로 삼을 주체는 현재의 국왕이 아니라 다음 왕조의 주인이 될 ‘정씨’다. 마침내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될 메시아적 인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유사한 관념은 1631년에 일어난 정한(鄭澣) 모반 사건에서도 나타났다.²⁹⁾

“기미년(1619)에 지리산에 가서 책을 읽고 있다가, 하루는 이인(異人)을 볼 수 있었는데 성은 정(鄭)이고 이름은 담(潭)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도읍(新都)’의 주인이다.”³⁰⁾

지난 달 거사하고자 술사와 함께 경성에 가 보았더니 궁궐이 참으로 길지(吉地)에 있고 ‘왕기’가 아직 쇠하지 않아 경솔히 움직일 수 없기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룡산에 가서 쇠를 띄워 터를 보고는 도읍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³¹⁾

여기에서 ‘왕기’와 ‘새로운 도읍’은 반란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왕도인 한양의 왕기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도읍만 획득한다면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관념까지 엿보인다. 또한 그 새로운 도읍을 차지할 것으로 예언된 진인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르게는 16세기 말,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왕기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왕조의 존망과 반란에 대한 종교적 주장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게 된다.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진인은 왕기가 서린 장소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메시아적 인물이다.

3. 책의 메시아니즘: 종말론적 집단심성의 형성

29)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우철, 「인조 9년(1631) 정한 모반 사건과 그 의미」, 『東洋古典研究』 39, 2010.

30) 『仁祖實錄』 권24, 仁祖 9년(1631) 2월 丁未(3일), “己未年間, 往智異山讀書, 一日得見異人, 姓鄭名潭, 此果新都主人也.”

31) 『仁祖實錄』 권24, 仁祖 9년(1631) 2월 丁未(3일), “前月欲舉事, 與術士, 到京中見之, 則宮闕正在吉地, 王氣未衰, 不可輕動. 故還寢. 而仍往雞龍山, 泛鐵相宅, 以爲定都之計.”

오늘날 학계와 일반에서 조선후기 진인출현설은 종종 ‘정감록사상’ 혹은 ‘정감록신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다. 『정감록』은 진인출현설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조선후기의 많은 도참비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주목한 백승종의 연구에 의하면, 『정감록』 자체는 18세기 전반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의 역모사건이나 괘서(掛書) 사건 등에 언급되는 도참비기는 대단히 다양하다. 확실히 『정감록』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단독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드물다.³²⁾ 또한 19세기 전반의 인물인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당시 유행하는 도참비기류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정감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³³⁾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정감록』이 도참비기들과 그를 둘러싼 신앙 일반을 대표하는 이름은 아니었던 셈이다.³⁴⁾

중요한 것은 『정감록』이라는 ‘책’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의 등장이다. 기록상 18세기 초반 즈음부터 확인되며, 오늘날에도 수십 종이 전해지는 이들 개별 도참비기들은 제목도, 형태도, 내용도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양식들로 분류할 수 있다.³⁵⁾ 어떤 것들은 두세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한반도의 지세와 그에 따른 왕조

32) 백승종,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 『진단학보』 88, 1999; 「18세기 전반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鄭鑑錄)』」, 『역사학보』 164, 1999.

33) 『五洲衍文長箋散稿』 권49, 「祕緯圖識辨證說」.

34) 구한말의 황현(黃玿) 및 그와 같은 시기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 정도종의 개교사(開敎使) 츠루야 카이류(鶴谷誠隆)도 1890-1910년 사이에 유행했던 비기 몇 편의 제목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정감록』은 없다. 단, 츠루야의 경우 고려 말에 정감(鄭鑑)이라는 이름의 풍수가 살았으며 그가 남긴 『정감록』이라는 비기가 있다는 소문을 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梧下記文』 首筆; 鶴谷誠隆, 『朝鮮の宗教』 [東京: 宗教研究會, 明治41(1908)], 80-82, 88-102.) 개화기 이후 언론기사와 식민지시기 지식인들의 글을 살펴보면,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도참비기에 의거한 이주운동이나 신종교운동,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까지를 포괄한다는 관념은 189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5) 흔히 『정감록』으로 통칭되는 현행본 도참비기들은 주로 1923년 이후 출간되었던 출판본들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수집한 11권 24편의 도참비기 모음집인 『비결집록(秘訣集錄)』을 활자화하고 개별적으로 수집한 문헌들을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金用柱, 『鄭鑑錄』 [京城(서울): 朝鮮圖書株式會社, 大正12(1923)]; 柳田文治郎, 『眞本 鄭鑑錄』 [京城(서울): 以文堂, 大正12(1923)]; 細井肇, 『鄭鑑錄 秘訣輯錄』 [東京: 自由討究社, 大正12(1923)]) 미국 버클리대학의 아사미 문고(Asami Library)에 소장된 『제가비설(諸家秘說)』,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에 소장된 『참서유취(讖書類聚)』는 또한 각각 17편, 38편의 독립된 도참비기들을 모아 놓은 필사본 모음집들이다. 그 외에도 각 도서관 및 개인이 소장한 도참비기류 문헌은 확인되는 것만

의 흥망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서술하는 글들도 있으며, 또 다른 것은 간지(干支)를 나열하고 각각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았다. 몇몇 글들은 제앙과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에는 『택리지(擇里志)』 등 당시 유행하던 지리지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다. 이들 양식은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은 양식이라도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늘날 전해지는 대부분의 도참비기들은 저자나 연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예외적으로 간기가 확인되는 것들도 19세기 중엽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는다.³⁶⁾ 또한 조선후기의 역모사건이나 종교적 비밀결사 운동에서 동원되었던 도참비기들은 그 단편들만이 기록되어 있어 현전하는 것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18세기의 도참비기들과 오늘날의 도참비기들 사이에는 양식상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승중은 1733년 남원괘서사건(南原掛書事件)에서 인용된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과 1785년 홍복영(洪福榮) 사건에서 언급된 『국조편년(國祚編年)』의 예를 들어 ‘편년체(編年體)’를 18세기 도참비기에 등장한 중요한 양식으로 보았다.³⁷⁾ 이는 일부 현전(現傳) 도참비기들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양식이다.

또한 1787년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당시 『정감록』이라 불리었던 도참비기에 대한 정조(正祖)와 규장각(奎章閣) 일제학(一提學) 김중수(金鍾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주상께서 말씀하였다. “그 글의 첫머리가 어떻게 되던가?” 김중수가 말했다. “글 첫머리가 ‘문산의 친구 이필(文山之友李泌)’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분명 『정감록(鄭鑑錄)』일 거다.” 김중수가 말했다. “과연 『정감록』이었습니까만, 거울 ‘감(鑑)’ 자가 아니라, 감란(勘亂)의 ‘감(勘)’ 자였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였다. “그 책은 몇 년 전 반역 사건 때에 내가 본 적이 있

해도 100편 이상으로 대단히 많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위에 언급된 책들에 수록된 글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겠다.

36)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간기(刊記)가 포함된 가장 오래된 도참비기는 함풍(咸豐) 8년(1858) 12월 9일에 전사(轉寫)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징비보장(徵秘寶藏)』(한고朝19-110)이다.

37) 백승중,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 268-269, 278-279.

다. 무슨 씨가 어느 해에, 무슨 씨가 어느 해에(某氏幾年, 某氏幾年) 하는 등의 말이 나와 있었다.” 김중수가 말했다. “그런 말이 과연 그 책 속에도 있었습니까.” (….)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문답이더냐?” 김중수가 말했다. “이필(李泌)과 정감(鄭勘)의 문답이었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기존의 것을)받아쓴 것이 분명하구나.”³⁸⁾

현전 도참비기 중에서도 『남사고비결』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은 편년 형태로 되어 있고, 『정감록』 혹은 그와 비슷한 제목이 붙은 글들은 대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목과 양식이 같다고 해서 18세기본과 현전본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일례로 남원패서사건에서 언급된 『남사고비결』의 단편들 가운데 현전본과 일치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정감록 유형’이라고 부를 만한 대화 형식의 글들은 등장인물들의 이름 표기나 내력에 대한 서술이 제각각이며 각 텍스트의 길이나 내용도 큰 편차를 보인다. 즉, 양식은 고정적이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대단히 유동적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도참비기를 거론하는 근대 이전의 역모사건이나 비밀결사에 대한 자료에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나타난다. 바로 오늘날 ‘정감록신앙’의 핵심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십승지(十勝地)’가 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십승지는 18세기 중반의 문헌인 『택리지』에도 언급되는 등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진 관념이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에서 십승지는 부각되지 않는다. 『정감록』이라는 책이 직접 언급될 때조차도, ‘해도(海島)’, ‘계룡산’ 등의 장소는 종종 강조되지만 십승지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반면 ‘정감록 유형’에 속하는 현전 도참비기 가운데 절대 다수에는 ‘해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⁴⁰⁾

38) 『承政院日記』 丁未(1787) 7월 15일 巳時, “上曰, ‘其書起頭云何?’ 鍾秀曰, ‘其起頭則以文文山之友李泌爲辭矣.’ 上曰, ‘此必鄭鑑錄也.’ 鍾秀曰, ‘果是鄭鑑錄, 而非非鑑, 字即勘亂之勘字矣.’ 上曰, ‘此冊年前逆獄時, 予已見之. 如某氏幾年, 某氏幾年之說在其中矣.’ 鍾秀曰, ‘此等說, 果在此冊中矣. (….)’ 上曰, ‘此冊首末皆問答乎?’ 鍾秀曰, ‘卽李泌與鄭勘問答者也.’ 上曰, ‘其爲膺作也必矣.’

39)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南師古十勝記, 以維麻兩水間, 爲避兵地.”

40) 우윤과 고성훈은 현전 도참비기들에서 ‘해도’에 대한 언급들을 추출해 분석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정감록 유형(대화형)’에 속하는 것은 없다(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1988], 229, 249; 고성훈, 「조선후기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 1997], 136-138). 그러나 1781년 문인방(文仁邦)의 역모사건에서는 ‘해도’에 대한 설이 『정감록』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推案及鞫案』 235책, 「逆賊仁邦京來等推案」 同日(1782년 11월 19일) 罪人瑞集年五十二.) 위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의 『정감록』은 도참비기 일반이 아니라 대화 양식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고정된 양식, 유동적인 내용’이라는 매체적 성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는 당혹스럽다. 사실 그 동안의 이른바 ‘정감록신앙’ 논의에서 ‘십승지’의 존재는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도참비기들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재난과 전란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장소들의 목록이다.⁴¹⁾ 그러나 어떻게 이런 ‘현실도피적’인 사상이 반왕조적인 반란의 기반이 되는 ‘민중사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우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십승지의 의미는 단순히 병란과 재해를 피하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만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몸을 피해버리는 도피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시 일반 기층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모순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지양한 그들의 공상적 ‘이상사회’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전란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요새와 같은 곳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장소라는 점에서 십승지는 조선왕조의 모순이 해결된 ‘이상세계’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논리이다. 우윤은 또한 십승지가 조선후기의 “변혁세력”에 있어 “조선왕조가 붕괴한 후의 정치·사회·경제적 체제성격을 미리 말해주는 청사진을 의미”했다고도 주장하였다.⁴²⁾ 개연성은 있지만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왕조의 붕괴’를 지향하였던 ‘변혁세력’들은 실제로는 십승지라는 말 자체를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선명은 ‘십승지’로 대표되는 소극적인 도피사상과 ‘진인출현설’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저항사상을 구분하였다.

미래국토의 대망사상과 관련하여 정감록은 이른바 십승지지(十勝之地)를 점정(占定)한 소극적 도피와 보신책(保身策)을 강조하는 일방,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진인(眞人)의 출현을 실현하려는 민중운동을 고취하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보다 반왕조(反王朝)의 색깔을 뚜렷이 함으로써 조선후기의 민중운동은 대체로 이러한 진인의 출현과 결부된 결사행동으로 나타난다.⁴³⁾

41) 현전 도참비기들 가운데에서 ‘십승지’는 단독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정감록』과 같은 대화 양식 문헌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십승지로 지정된 장소들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십승지 이외에도 삼대지(三大地), 팔명당(八明堂) 등의 장소목록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다.

42)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228.

43)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275-276.

‘십승지’와 ‘진인출현설’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질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십승지’등의 피난 장소에 주목하는 집단은 재앙이나 전란이 있을 때 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이주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작성, 전승하는 도참비기들에는 점차 길고 자세한 ‘도피처’들의 목록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한편 ‘진인’의 임박한 출현에 주목하는 반란집단은 진인이 과연 언제, 어디로부터 올 것이며, 어디에서 봉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책에는 이씨 왕조의 임박한 종말과 그 과정, 진인이 출현할 장소에 대한 서사들이 점차 추가되어 갔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왜 이리 다양하고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도참비기 문헌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전 도참비기들과 조선후기 기록에 언급되는 도참비기 단편들 사이에 왜 그토록 많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십승지’로의 이주운동집단과 ‘진인’의 출현을 대망하는 반역적 비밀결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있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출현한 도참비기들의 내용을 이루는 문화적 기반이자, 이들 책이 유행시키고 대중화시킨 집단심성(mentalité)인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인 태도’다.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태는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도참비기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현재의 세계가 무너질 때 일어날 재난에 대해 훨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신년(申年) 봄 3월 성스러운 해(聖歲) 가을 8월에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사이에는 밤중에 1000척의 배가 머무를 것이다.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사이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일 것이다. 여주(驪州)와 광주(廣州) 사이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수성(隋城)과 당성(唐城) 사이에는 흐르는 피가 개울을 이룰 것이다. 한강 남쪽 100리에 닭소리와 개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⁴⁴⁾

흉년, 전염병, 전쟁과 학살에 대한 참혹한 묘사는 오늘날 전해지는 도참비기들과 조선후기의 역모사건 기록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것은 묵시적(apocalyptic) 성격을 가진 예언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전란은 조선후기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44) 「鑑訣」, “申年春三月, 聖歲秋八月, 仁富之間, 夜泊千艘. 安竹之間, 積尸如山. 驪廣之間, 人影永絕. 隋唐之間, 流血成川. 漢南百里, 鷄犬無聲, 人影永絕.”(細井肇, 『鄭鑑錄 秘訣輯錄』, 3-4.)

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홍수, 가뭄, 전염병 등이 동시에 닥치는 대기근(大饑饉)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⁴⁵⁾ 전쟁의 기억 또한 전란을 통한 국가의 멸망이라는 환상을 강화시켰다. 16세기에는 일본, 17세기에는 청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왕은 매번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또한 17세기에는 인조, 18세기에는 영조의 즉위와 함께 왕에게 저항하는 대규모의 내란이 지배층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도참비기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고, 반대로 그런 도참비기의 내용은 현실과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져 그에 대한 종교적 신뢰를 강화시켰다.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인물인 정약용(丁若鏞)은 도참비기를 둘러싼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갑자기 홀쩍이며 『도선비기(道說秘記)』와 『정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예언의 말을 읊어댄다. "어느 해에는 반드시 군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느 해에는 해에는 반드시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 피가 흘러 시내를 이룰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 씨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처가와 친구들에게 집과 땅을 팔고 (조상의) 무덤도 버리고는 깊은 산 호랑이와 표범굴로 들어가 그 재앙을 기다리라고 권한다.⁴⁶⁾

18세기 이후 『정감록』을 포함한 도참비기들의 유행은 말세에 대한 불안감을 대중화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종말론적 집단심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세계관에는 한양의 왕기가 소진되었으며 이씨 왕조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 계속되는 재앙과 전란은 그 전조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공포, 그 와중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피난처들에 대한 믿음, 혼란의 끝에 새로운 왕조를 세울 메시아적 인물인 진인의 출현에 대한 기대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책들은 특정한 '정본(正本)'이 존재하지 않는 유동적인 텍스트들이었다. 특정한 주제와 양식 몇 가지만이 유지될 뿐, 무수한 변형이 존재하였다. 개별 텍스트들은 작성자의 목적에 따라 위에 열거한 요소들 가운데 특정한 몇 가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또한 결코 획일적인 것이 아니었다. '도피'는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45) 그 가운데 특히 심각했던 1670-71년의 경신대기근(庚申大饑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2008])

46) 『與猶堂全書』 권11, 「五學論」 5, “忽歔歔誦道說秘記鄭鑑識說, 曰, ‘某年兵必起’, 曰, ‘某年獄必興, 將血流成川, 人種以絕.’ 勸其婚友鬻田宅棄墳墓, 入深山虎豹之窟, 以俟其難.”

4. 다양한 메시아니즘: 장소에 대한 전략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종교문화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주로 술사(術士) 및 술승(術僧)들에 의해서 유포된, 국가의 위기와 재앙은 수도의 왕기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며 왕기가 왕성한 ‘다른 장소’가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권력집단에 의해 채택될 경우에는 왕조의 운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례적 실천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인출현설은 메시아적 인물인 진인이 그 장소를 획득하여 현재의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이 시기 활발하게 작성, 유통되었던 도참비기들이 대중화한 종말론적인 집단심성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말세에 도피할 장소들에 대한 안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진인출현설을 신봉하는 집단은 이를 새로운 세계의 등장에 대한 징후로 파악하고 그 종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비밀결사운동 및 반란 사건에서 진인출현설은 어떤 방식으로 주장, 실천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특징적인 네 가지를 들어 이들 진인출현설이 어떤 방식으로 도성 한양이 국가의 성스러운 중심이자 왕기가 머무는 장소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소가 된 메시아, 메시아가 된 장소

조선후기 상황에서 진인출현설이 반왕조, 반체제적인 사상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늘 역모사건이나 정치운동에만 관련되었던 것은 아니다. 얼핏 보아서는 정치집단과 무관해 보이는 무당 들의 비밀결사에도 진인출현설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1691년에 발생한 ‘차충결(車忠傑) 옥사’에 관련된 무당과 그 신도들은 메시아적 인물인 “정씨 아이(鄭兒)”를 탐색하는 한편, 그를 생불(生佛)이라 믿으며 그를 위한 천제(天祭)를 행하기도 했다.⁴⁷⁾ 최종성은 이와 같은 운동의 배후에 있는 “공간중심적 변혁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단순한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한양이 곧 망할 것이며 새로운 정씨의 땅을 예고

47) 이 사건에 대한 개괄은 다음을 참조할 것(최종성 외 역, 『국역 차충결추안』 [민속원, 2010], 9-47).

해야 한다는 지기쇠왕설에 근거한 도참적 신앙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이른바 ‘한양장망설(漢陽將亡說)’과 ‘전읍지참(奠邑之讖)’은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공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간중심적인 변혁(spatial centric change)에 무게를 둔다. (...) 전읍은 유교 정치와 교양의 중심지인 수선(首善)의 땅을 부정하는 반왕도적(反王都的) 관념공간이지만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구체적인 공간으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⁴⁸⁾

‘전읍(奠邑)’이란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악장인 「수보록(受寶錄)」에 등장하는 ‘삼전삼읍(三奠三邑)’, 정여립의 반란 자료에서 언급되었던 ‘목자망, 전읍흥(木子亡, 奠邑興)’ 등의 도참들에서 보듯, ‘정(鄭)’에 대한 ‘너무나 잘 알려져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과자(跛者)였다. 「수보록」의 ‘세 전읍’이 ‘목자(木子)’, 즉 이(李)씨 왕조를 도울 세 사람의 정씨 건국공신에 대한 예언이라면, 정여립의 반란사건에서 ‘전읍’, 즉 정씨는 ‘목자’를 이을 적대적 계승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17세기 말의 자료에 이르면 ‘전읍(奠邑)=정(鄭)’은 ‘목자(木子)=이(李)’가 아니라, 도읍 ‘한양(漢陽)’의 대응항(counterpart)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환된 배치로 인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과자의 일부였던 ‘읍(邑)’이라는 글자는 그 장소표상으로서의 의미값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씨’를 이을 왕조를 세울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예언은 ‘한양’을 대신할 장소에 대한 예언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실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정씨’라는 메시아적 인물이다. 장소표상과 인물표상의 이러한 중첩은 ‘한양이 망할 것’이라는 도참을 ‘한양을 대신할 장소’와 ‘한양을 멸망시킬 인물’을 동시에 지시하는 중의적 예언으로 만들어 준다.

장소표상과 인물표상의 이러한 중첩은 19세기의 반란지도자 이필제(李弼濟)의 주장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이름 글자(‘弼’)에 ‘궁궁(弓弓)’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자신이 태어난 해가 을유(乙酉)년이기 때문에 ‘을을(乙乙)’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궁궁’은 조선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유포되어 있었던 도참구절 가운데 하나로, 전란이 닥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암호였다.⁵⁰⁾

48) 최중성, 「생불과 무당-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종교연구』 68, 2012), 205.

49) 『左捕廳謄錄』 己巳(1869년) 4월 18일 朴會震 供招, “又曰, ‘弼濟之弼字爲弓弓’, 又曰, ‘弼濟乙酉生, 故曰乙乙也’, 彷彿壬辰松松之說.”

50) 기록상 ‘궁궁’에 대한 언급은 1748년 청주·문의 궤서사건, 1787년 김동익(金東翼) 역모사건 등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과거의 ‘이재송송(利在松松)’, ‘이재가가(利在家家)’에 이은 ‘이재궁궁(利在弓弓)’의 예언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십승지’, ‘신도’ 등의 장소와는 달리 ‘궁궁’은 특정한 장소로 확정짓기 어려웠던 탓에 늘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던 유동적인 표상이었다. 청주·문의 궤서사건의 경우, 사건관련자 모두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이 또한 말세의 피난 장소에 대한 예언을 반란지도자의 신성함에 대한 예언과 중첩시킨 사례인 것이다.⁵¹⁾

나. 바다에서 오는 진인의 군대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의 반란 모의 사건에서는 진인 정씨가 바다의 섬에 머물러 군사를 키우고 있으며, 때가 되면 한반도에 상륙하여 조선왕조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담론이 활발하게 등장한다.⁵²⁾ 역사학에서는 이를 진인이 섬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해도진인설(海島眞人說)’, 섬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진인이 머물고 있다는 섬이 일반적으로 남해바다에 있다는 점에서 ‘남방진인설(南方眞人說)’이라고도 부른다.⁵³⁾ 진인이 이끄는 군사들은 청(淸)에 의해 멸망한 명(明)의 후예, 무신란(戊申亂)과 같은 대규모 반란의 잔당 등이라고 믿어졌다. 19세기에는 서북 지역의 반란을 이끌었던 홍경래(洪景來)가 죽지 않고 섬에서 군사를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역모사건들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해석을 내놓았고 조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었다. 19세기의 이규경 또한 당시 유행하던 궁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해석들을 망라해 놓았다.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樂土可作菟裘辨證說」)

- 51) 같은 시대 동학(東學)에서 ‘궁궁을을’의 예언이 이용되었던 방식 또한 흥미롭다. 최계우(崔濟愚)가 상제(上帝)에게 받은 영부(靈符)는 ‘궁궁(弓弓)’의 형태였다고 한다. (『東經大全』, 「布德文」) 또한 최계우는 ‘궁궁’이 당시의 도참비기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龍潭遺詞』, 「몽중노소문답가」) 동학농민전쟁 당시 동학군들은 「궁을가(弓乙歌)」를 만들어 불렀으며, 궁을(弓乙)의 형태로 진을 치기도 했다. (『梧下記文』 首筆.)
- 52) 정씨 진인의 해도(海島)로부터의 출현을 말하는 17세기 후반의 초기 자료들은 다음을 참조할 것(김우철,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 과정 - 『정감록(鄭鑑錄)』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93-95). 18세기 이후 해도진인설 사례들은 고성훈과 백승종에 의해 검토된 바 있다. (고성훈, 「조선후기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141-149; 백승종,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 283-289.) 이들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정형화된 해도진인설이 언급된 가장 이른 문헌자료는 1694년의 「함이완·김인 등 추안(咸以完寅等推案)」(『推案及鞫案』 108-109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53) 최남선이 말하는 ‘남조선사상’ 역시 ‘남방진인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사상은 진인이 남해의 섬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고, 남방진인설(해도진인설, 해도기병설)은 진인이 군사를 이끌고 남해의 섬에서 ‘오는’ 것이다.

왜 진인이 바다 건너 섬에서 올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조선후기에는 섬으로 이주하는 유민(流民)들이 늘었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후예들이 섬으로 유배되는 일도 잦았다. 고성훈은 이런 이들이 해랑적(海浪賊)이라 불린 저항세력이 되었고, 이것이 섬의 진인에 대한 예언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주장하였다.⁵⁴⁾ 한편 17세기에 현재의 타이완(臺灣)을 점거하고 청(淸)에 맞서 싸웠던 정(鄭)씨 왕조에 대한 인식이, 조선의 정씨진인설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 해도진인설이라고 보는 견해 또한 있다.⁵⁵⁾

원칙적으로 섬에서의 거주를 금지, 제한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폈던 조선왕조에서 바다 저편의 섬은 중앙권력의 통제가 약한 곳이었다. 『홍길동전(洪吉童傳)』, 『허생전(許生傳)』 등 조선후기의 소설들이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대안사회를 ‘섬’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제한된 정보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언에 등장하는 진인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환상이 있다면, 섬은 그 가장 적절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해랑적, 정씨 왕조 등 실재하는 세력의 존재는 그런 환상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다.

‘바다의 진인’에 대한 환상은 바다 건너의 또 다른 세력, 천주교를 인식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처음 입국했을 때, 그와 접촉했던 일부 젊은 유교적 지식인들은 그가 먼 서쪽의 섬에 살고 있는 ‘도중성인(島中聖人)’ 혹은 ‘서방미인(西方美人)’이라는 환상의 인물이 보낸 이인(異人)이라고 이해하였다.⁵⁶⁾ 주문모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훗날 천주교인으로서 순교하게 되는 김건순(金健淳)은 주문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협객’으로 오인하고, 무리를 이끌고 섬으로 이주해 큰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⁵⁷⁾ 또 1801년 신유교옥(辛酉敎獄) 당시의 심문기록에 따르면, 당시 천주교인들 사이에서는 “성스러운 해, 인천과 부평 사이에는 배 1000척이 밤에 머무를 것(聖歲, 仁富之間, 夜舶千艘)”이라는 유명한 예언이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성스러운 해’를 예수가 태

54) 고성훈, 「조선후기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130-136.

55) 石井壽夫, 「臺灣鄭氏風聞と鄭鑑錄」(『史學雜誌』 52/7, 1941); 松本真輔, 「韓國の予言書『鄭鑑錄』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った鄭經の朝鮮半島侵攻說」(『アジア遊学』 161, 2013); 정응수,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鄭經) 부자」(『일본문화학보』 58, 2013).

56) 『推案及鞫案』 247쪽, 「邪學罪人姜舜天等推案」 同日(1801년 3월 26일) 罪人金信國年四十九, “島中聖人云者, 稱以西方美人, 住於南門內者, 稱以南郭先生.”

57) 『推案及鞫案』 246쪽, 「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同日(1801년 3월 15일) 罪人周文謨年五十, “矣身則勸之奉教, 而彼則言論中多有疑矣身為俠客者, 因勸矣身聚教友數十家入海島, 可任意行教中之事, 且曰‘我亦招人到海島, 繕軍器作大艦, 非敢爲害於本國, 惟欲直到他邦, 以雪先恥耳矣.’ 矣身大驚却之曰, ‘我東來行教, 爲救人靈魂耳, 如君所云云, 不敢與聞也.’”

어난 해와 같은 경신년(庚申年, 1800년)으로 이해하고, 배 1000척을 서양인의 군함으로 해석한 것이다.⁵⁸⁾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는 천주교에 대한 카고컬트(cargo cult)적인 이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 시기 ‘해도(海島)’는 장차 조선왕조를 멸망시킬 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 섬에 머물고 있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공백은 개별 집단의 전략과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채워지면서 진인의 출현에 대한 예언에 강한 공간적 현실성을 부여해 주었다.

다. 증원의 황제가 될 두 번째 진인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진인이 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1697년(숙종23)에 적발된 역모사건에서는 반란을 이끌 지도자로 두 사람의 진인이 지목되었다.

이른바 진인(眞人) 정(鄭)씨와 최(崔)씨 두 사람을 얻어, 먼저 우리나라를 평정하여 정씨를 임금으로 삼고, 다음으로 증원을 공격하여 최씨를 세워 황제로 삼는다.⁵⁹⁾

정포은(鄭圃隱: 정몽주)의 13세손과 최영(崔瑩)의 후예를 기(氣)를 보아 찾아내어서는, 우리나라에 정씨를 세우고 증원에 최씨를 세울 것이다.⁶⁰⁾

정씨 진인을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鄭夢周)의 후예라 보고 있다는 점이 독

58) 이에 대해서는 조광, 스즈키 노부아키(鈴木信昭) 등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조광, 「황사영백서의 사회사상적 배경」 [『사총』 21, 1977];鈴木信昭, 「朝鮮後期天主教思想と『鄭鑑錄』」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0, 2002]). 반면 고을희는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된 진술들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시기 천주교인들의 양박청래(洋舶請來) 계획을 도참비기신앙과 연결시키는 관점을 논박하였다(고을희, 「정조대(正祖代) 서양 선교사와 양박(洋舶) 영입 시도」 [『교회사연구』 25, 2005], 307-310). 물론 당시 천주교 공동체의 주류 담론에서 서양 세력과 해도진인이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천주교 공동체의 주변부에서 진인출현설을 천주교와 연관 짓는 움직임이 존재했음은 분명한 듯하다.

59) 『推案及鞫案』 114책, 「李榮昌等推案」(丁丑 1월 10일) 上變書, “得所謂眞人鄭姓崔姓兩人, 先平我國, 立鄭姓爲主後, 攻中原, 立崔姓爲帝.”

60) 「李榮昌等推案」 同日(1697년 1월 11일) 罪人兪選基年三十七, “鄭圃隱十三世孫及崔瑩後裔, 望氣尋得, 立鄭哥於我國, 立崔哥於中原.”

특하다. 그리고 최영의 후예인 최씨를 제2의 진인으로 지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씨 진인은 중국을 점령하여 황제가 될 인물로 예언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17세기의 역모집단 혹은 비밀결사 사이에서는 ‘최영 장군신(將軍神)’ 또는 ‘최영의 후예’가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다.⁶¹⁾ 그런데 이 사건에 이르러 최씨 진인이 “중원을 공격하여 황제가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째서인가? 역사적으로도 최영은 요동(遼東)을 공격하려 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좌절 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성계였다.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공격할 진인으로 이성계 세력에게 패배하여 살해당한 최영의 후예를 지정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적합성을 가진다. 또 하나의 요인은 당시 팽배해 있었던 청(淸)에 대한 반감이었다. 많은 조선의 엘리트와 민중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조선을 구해 준 명(明)을 멸망시키고, 조선의 임금에게 치욕을 안겨 준 청을 중주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국을 공격한다’는 북벌론(北伐論)은 당시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주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씨 진인에 의한 한국의 왕조교체는 중국의 왕조교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와 유사한 ‘두 사람의 진인’ 이야기는 19세기에도 나타났다. 앞서 잠시 언급 하였던 이필제(李弼濟)는 1869년 진천, 1870년 진주, 1871년 영해, 같은 해 조령에서까지 네 차례의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직업적 봉기꾼’이었다.⁶²⁾ 그는 스스로가 중국의 황제가 될 천명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세 번째 반란이었던 영해란(寧海亂)은 당시 최시형(崔時亨)이 이끌고 있었던 동학교단의 지원을 받아 지방 관청을 점거하는 데 성공했던 사건이었다. 동학 측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는

61) 1629년에는 이충경(李忠慶)이 이끄는 명화적(明火賊)들이 말을 잡아 최영, 남이(南怡), 송대(宋大) 세 장군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도성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推案及鞫案』 41책, 「逆賊李忠慶文書」, 己巳(1629년) 2월 29일, 江原監司李顯英書狀, “十四日, 剪紙爲旗, 且書崔瑩南怡宋大等三將軍形像, 各書其名於畫中, 構木爲床, 插旗其上, 殺馬祭神, 同歃馬血, 因受軍徒拜禮後, 唱說曰, ‘如此然後 可成大事 來三月初二日前 趁即上京舉事’云.”) 또한 김우철은 1631년의 정한(鄭澣) 모반 사건과 1646년의 안익신(安益信) 모반 사건에서 최영의 후예가 상징적인 반란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인조 9년(1631) 정한 모반 사건과 그 의미」, 122; 「인조 24년(1646) 안익신 모반 사건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33, 2008], 272-273.) 또한 1688년의 여환 옥사에서도 도성에 침입하는 의례적 행진에 ‘최영 장군의 영’을 자처하는 정호명(鄭好明)이라는 인물이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逆賊呂還等推案』 同日(무진 8월 9일), 罪人鄭元泰鄭好明李末立鄭萬一等一處面質, “將軍之稱果是謂吾, 而此亦爲鬼崇之致矣.”; “好明則自謂崔瑩將軍之靈, 故徒黨紛以將軍.”)

62) 이필제가 주도한 반란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조(윤대원, 「이필제란 연구」 [『한국사론』 16, 1987]; 장영민, 「1871년 영해 동학란」 [『한국학보』 13/2, 1987];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2003]).

최시형에게 자신이 단군(檀君)과 유방(劉邦)의 화신이며, 최제우의 억울함을 갚고 중국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주장했다 한다.⁶³⁾

이필제가 ‘두 명의 진인’을 내세운 것은 그의 마지막 반란이었던 조령란(鳥嶺亂)에서였다. 당시 이필제의 반란 집단은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트리고 있었다.

서호(西湖)는 정(鄭)씨로 조선을 경영할 사람이다. 그는 아직 섬에 있다. 동산주인(東山主人)은 권(權)씨로 남경(南京)을 도모할 것이다. 그는 지금 가산(佳山)의 진사(進士) 정봉래(鄭鳳來)의 집에 있다.⁶⁴⁾

여기에는 정씨와 권씨, 두 진인이 각각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다. 권씨는 당시 가명을 쓰고 있었던 이필제 자신을 말하고, 정씨는 그의 동료인 정기현(鄭岐鉉)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특히 정씨가 ‘아직 섬에 있다’는 것은 해도진인설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했다. 정씨 진인이 조선의 왕이 되고 제2의 진인이 중국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는 17세기의 사례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필제의 경우, 명의 복수를 위해 청을 공격한다는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종종 자신이 천자(天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야망을 드러냈고, 서양 세력에 의해 중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좋은 기회로 여겼다.

두 사례 모두 기본적으로는 정씨가 출현하여 조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진인출현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혁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2의 진인에 의한 중국 공격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타난다. 물론 중국 공격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내세워진 명분일 뿐, 조선의 혁명보다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진인’ 출현설에는 중국이라는 다른 공간적 중심을 설정하면서 조선왕조를 상대화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었다. 조선후기 진인출현설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티브는 당시 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 체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던 ‘소중화(小中華)’, ‘반청복명(反淸復明)’ 등 탈중심적 세계관의 부산물이기도 했다.

라. 삼국(三國) 분열의 시나리오

63)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문덕사, 1991], 79, 215-216.)

64) 『錦營啓錄』 6책, 「延豐縣捉囚罪人等招辭」 辛未(1871년) 8월 16일 鄭起源 供招, “西湖卽鄭哥, 而方營朝鮮, 尙在島中. 東山主人卽權哥, 而圖謀南京, 今在佳山鄭進士鳳來家.”

오늘날 전해지는 조선후기의 도참비기 가운데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징비록(徵秘錄)」 등에는 또 다른 진인출현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일어날 때에는 세 사람의 성스러운 왕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세 사람의 어리석은 왕이 있을 것이며, 망할 때에는 세 나라의 분열이 있을 것이다.”⁶⁵⁾ 이 ‘삼국시대’는 170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를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전읍(奠邑), 즉 정(鄭)씨가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⁶⁶⁾ 이 예언에 대해서는 그 표현(“三國鼎峙”)이나 내용(삼국통일과 왕위 찬탈)으로 볼 때, 당시 민간에까지 널리 유행하였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영향 또한 짐작하게 한다.

한편 18세기 말에는 삼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 전면에 내세워진 사건이 있었다. 1785년(정조 9)에 있었던 홍복영(洪福榮) 사건이 그것이다. 이 시기 정조에 의해 숙청당한 홍국영(洪國榮)을 따르던 몰락양반들은 지방의 저항세력과 결합하여 전국적인 반란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결사적인 저항집단인 산인세력(山人勢力)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세계관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진인출현설은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⁶⁷⁾

홍복영 사건 당시의 반란세력은 도참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인(神人), 이인(異人), 선인(仙人) 등의 초월적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평민 문양해(文洋海)에 의한 예언 또한 권위를 지녔다. 그들은 조선이 곧 멸망할 것이며, 바다에서 신병(神兵)을 이끌고 오는 정씨에 의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진인출현설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하였다.

조선의 산천(山川)에는 천문(天文)과 지리(地理)가 모두 셋으로 갈라질 징조가 있습니다. 임자년(1792)에 도적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후에는 나라가 셋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세 개로 나뉘는 나라의 성씨는 정(鄭)씨, 유(劉)씨, 김

65) 「徵秘錄」, “其興也, 有三王之聖. 其終也, 有三王之闇. 其亡也, 有三國之分.” (金用柱, 『鄭鑑錄』, p. 495.) 「삼한산림비기」에도 완전히 같은 구절이 있다. (金用柱, 『鄭鑑錄』, 573.)

66) 「三韓山林秘記」, “三國鼎峙, 定在卯辰之年. 太白之下, 最爲強盛. 經百七十年, 從并二國, 末爲奠邑外姓所篡.” (細井肇, 『鄭鑑錄 秘訣輯錄』, pp. 742-743.) 이것은 앞의 「징비록」에는 없는 구절이다.

67) 홍복영 사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고성훈, 「정조조 홍복영 옥사와 산인세력」 [『동국사학』 26, 1991]; 배혜숙, 「정조년간 홍복영옥사 연구」 [『실학사상연구』 5, 1995]; 백승중, 「18세기 후반 평민지식인들의 지하조직-1785년 3월의 정감록 사건」 [『한국사론』 36, 2002]).

(金)씨로 결국에는 정씨가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씨는 남해(南海)의 섬에 있고, 유씨는 통천(通川)에 있으며, 김씨는 영암(靈巖)에 있다고 합니다. 임자년에는 정씨가 먼저 바다의 섬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유씨와 김씨도 이를 따라 봉기한다고도 하였습니다.⁶⁸⁾

이 진인 출현과 삼국분열에 대한 시나리오는 사건 관련자 개개인의 진술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개중에는 정씨 진인이 아직 13세라는 말도 있었고, 삼국의 분열 상황이 1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한 세 성씨가 정씨, 유씨, 김씨가 아닌 정씨, 유씨, 구(具)씨라는 진술도 나왔다. 세 사람이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나 지역에 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조선이 멸망했다가, 나중에 정씨에 의해 통일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치했다.

이 반란은 계획단계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언의 시나리오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계획이었던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몇 가지 실마리는 있다. 그들의 세력은 전국의 10여개 지역에 뻗어 있었다. 삼국 분열의 예언에 의하면 통천은 ‘유씨’가 일어날 지역이었는데, 통천 지역을 맡은 인물의 이름이 바로 유경일(劉景一)이었다.⁶⁹⁾ 그리고 영암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김씨’는 “하늘이 낳은 사람(天之所生之人)”이라고도 불리었고, 이 역모의 핵심인물들인 이울(李璫)과 양형(梁衡)이 그의 세력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바다에서 신병(神兵)을 이끌고 상륙할 것이라는 ‘정씨’는 이미 세 번이나 육지로 사람을 보내어 사정을 탐지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⁷⁰⁾ 이와 같은 정황은 삼국분열설이 전국단위의 반란을 조직하기 위한 담론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씨 진인 이야기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진인이 어떻게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해 주는 예언이기도 했다. 또한 나라가 세 군데의 장소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중간 과정’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는 한양이라고 하는 현존 권력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다원화, 해체하는 효과도 있었다.⁷¹⁾

68) 『正祖實錄』 권19, 정조 9년(1785) 3월 庚戌(1일), “朝鮮山川, 天文地理, 皆有三分之兆. 壬子年有事賊起, 其後當三分復合爲一. 而三分之姓, 則鄭哥·劉哥·金哥, 畢竟鄭哥當合而爲一. 而在於南海島中, 劉哥在於通川, 金哥在於靈巖云矣. 壬子, 鄭哥先爲起兵於海島, 劉·金則繼此而起云.”

69) 『正祖實錄』 권19, 정조 9년(1785) 3월 丁巳(8일).

70) 『正祖實錄』 권19, 정조 9년(1785) 3월 庚戌(1일).

71) 이외에도 1687년 양우철(梁愚轍)의 흥서(興書) 사건에서 압수된 『비기대총(秘記大摠)』이

5. 결론: 호국의 지도와 혁세의 지도

‘진인출현설’을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일련의 전략들로 해석한 결과, 우리는 조선 후기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그 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대립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후기 한반도라는 장에는 두 가지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정과에 관계없이, 국왕과 대부분의 지배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세력과 비밀결사조직에 의해 형성된 지도였다. 여기에서는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중심상징이론에 대한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비판적 검토의 틀을 빌려, 전자의 구심적-폐쇄적-위치지정적(centripetal-closed-locative) 세계관을 호국(護國) 지향의 지도, 후자의 원심적-개방적-유토피아적(centrifugal-open-utopian) 세계관을 혁세(革世) 지향의 지도라 부르겠다.⁷²⁾

‘호국의 지도’는 국토를 일원적인 중심지인 왕도 한양을 중심으로 이상적 문화가 뻗어나가는 동심원적 형태로 상상한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혼란과 무질서는 수선(首善)의 장소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왕의 교화가 아직 닿지 않은 까닭으로 이해된다. 최종성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의 도성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성은 유교의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출발지로서 순수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해도 마치 소도(蘇塗)나 십승지(十勝地)와 같이 세속적인 법과 질서가 절연되거나 현실의 고통이 초극되는 피난처(asylum)의 의미는 아니다. 왕도는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이기도 한(정확히 양자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유교의 문화적인 이상이 공간화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라는 제목의 도참서에는 미래에 이씨, 정씨, 조씨, 위씨의 왕조가 이어진 후 각각 계림(鷄林), 완산(完山), 송악(松岳), 평양(平壤)을 도읍으로 하는 네 개의 왕조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철,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 진인 수용 과정」, pp. 90-91.) 이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니지만, 장차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질 것이라는 도참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다.

72) Jonathan Z. Smith, “The Wobbling Pivot,”(1972)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Leiden : E.J. Brill, 1978) 참조.

73) 최종성, 「조선시대 왕도의 신성화와 무속문화의 추이」, 41.

그러나 ‘혁세의 지도’는 도성의 공간적 성스러움과 중심성을 부정한다. 그런 세계관은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잡힌 세계에 대한 관념이 혼란에 가득 찬 현실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왕기의 쇠진과 함께 도성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힘을 상실한다. 기근과 전란, 전염병과 같은 혼란은 더 이상 세계가 이상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근거가 된다. 이제 중심은 고정적이지 않다. 이 지도는 한양을 대체할 ‘신도(新都)’들, 그 새로운 도읍을 차지할 메시아적 인물이 머물고 있는 ‘해도(海島)’들, 진인의 출현과 함께 도래할 변혁과 전란의 시기에 몸을 보전할 수 있는 피난처들인 ‘궁궁(弓弓)’과 ‘십승지(十勝地)’ 등 다원적인 ‘중심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이 그리는 혁세의 지도는 현존하는 정치적, 문화적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이 그 천명(天命)을 다한 현 왕조의 멸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반란 집단들과 종교적 비밀결사들은 이미 그 힘을 다한 도성 한양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거나, 새로운 중심이 될 장소를 설립하거나, 임박한 종말로부터 도피할 장소로 이주하는 등, 공간적 전략에 입각한 일련의 의례적 실천들을 행하였다.⁷⁴⁾

이와 같은 관점은 조선후기의 진인출현설에 대해 그 ‘민중사상적 변혁성’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논의들에 비해 더욱 풍부한 인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교학적 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종교적인 구원자인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대망과 공간 및 장소에 대한 문화적 상상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주제어: 한국종교, 메시아니즘, 인지적 지도, 정감록, 해도진인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4일

74) 본 논문에서는 주로 진인출현설이라는 신화적 담론을 다루었다. 그와 관련된 조선후기의 의례적 실천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邪學罪人姜霖天等推案」
- 「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 「逆賊呂還等推案」
- 「逆賊李忠慶文書」
- 「逆賊仁邦京來等推案」
- 「李榮昌等推案」
- 「咸以完金寅等推案」
- 『高麗史』
- 『光海君日記』
- 『錦營啓錄』
- 『東經大全』
- 『龍潭遺詞』
- 『史記』
- 『三國志』
- 『宣祖修正實錄』
- 『承政院日記』
- 『與猶堂全書』
- 『五洲衍文長箋散稿』
- 『梧下記文』
- 『仁祖實錄』
- 『正祖實錄』
- 『諸家秘說』
- 『左捕廳膽錄』
- 『徵秘寶藏』
- 『識書類聚』
- 『崔先生文集道源記書』
- 『擇里志』

고성훈. 「정조조 홍복영 옥사와 산인세력」. 『동국사학』 26, 1991.

_____. 「조선후기 '해도기병설 (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

- 선시대사학보』 3, 1997.
- 고을희. 「정조대(正祖代) 서양 선교사와 양박(洋舶) 영입 시도」. 『교회사연구』 25, 2005.
-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 역사, 2008.
- 김우철. 「인조 24년(1646) 안익신 모반 사건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33, 2008.
- _____. 「인조 9년(1631) 정한 모반 사건과 그 의미」. 『東洋古典研究』 39, 2010.
- _____. 「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 과정 - 『정감록(鄭鑑錄)』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 김종서. 「서울 문화의 종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1, 1986.
- 배혜숙. 「정조년간 흥복영육사 연구」. 『실학사상연구』 5, 1995.
- 백승중.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 시대인들의 해석」. 『진단학보』 88, 1999.
- _____. 「18세기 전반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鄭鑑錄)』」. 『역사학보』 164, 1999.
- _____. 「18세기 후반 평민지식인들의 지하조직-1785년 3월의 정감록 사건」. 『한국사론』 36, 2002.
-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2003.
-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1988.
- 윤대원. 「이필제란 연구」. 『한국사론』 16, 1987.
-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문덕사, 1991.
-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의교사』. 京城(서울):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 장병길. 「정감록과 진인신앙: 한국에 있어서의 메시아니즘」. 『세대』 1965. 2.
- 장영민. 「1871년 영해 동학란」. 『한국학보』 13/2, 1987.
- 정응수.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鄭經) 부자」. 『일본문화학보』 58, 2013.
- 조광. 「황사영백서의 사회사상적 배경」. 『사총』 21, 1977.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동명사, 1946.
- 최중성 외 역. 『국역 차충결추안』. 민속원, 2010.
- 최중성. 「조선시대 왕도의 신성화와 무속문화의 추이-법제를 통한 淫祀정책과

- 서울에 대한 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1, 2003.
- _____. 「생불과 무당-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 『종교연구』 68, 2012.
-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서울: 종로서적, 1980, pp. 193-197
- _____.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5.

- Relph, Edward.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 Ringgren, Helmer. “Messianism: an overview.” i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9.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 Smith, Jonathan Z. “The Wobbling Pivot.”(1972)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Leiden : E.J. Brill, 1978.
-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 金用柱. 『鄭鑑錄』. 京城(서울): 朝鮮圖書株式會社, 大正12(1923).
- 鈴木信昭. 「朝鮮後期天主教思想と『鄭鑑錄』」.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0, 2002.
- 柳田文治郎. 『眞本 鄭堪錄』. 京城(서울): 以文堂, 大正12(1923).
- 石井壽夫. 「臺灣鄭氏風聞と鄭鑑錄」. 『史學雜誌』 52/7, 1941.
- 細井肇. 『鄭鑑錄 秘訣輯錄』. 東京: 自由討究社, 大正12(1923).
- 松本真輔. 「韓國の予言書『鄭鑑錄』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った鄭經の朝鮮半島侵攻説」. 『アジア遊学』 161, 2013.
- 蔣少华. 「金陵王气的历史回音」. 『寻根』 2011/4, 2011.
-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昭和8(1933).
- 鶴谷誠隆. 『朝鮮の宗教』. 東京: 宗教研究會, 明治41(1908).

Messianism in Pre-modern Korea:

Forms of The Prophecy of Jinin's Appearance in the Late Joseon Korea
and Its Spatial Strategies

Han Seung H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phecy of jinin 眞人's appearance was a wide-spread myth in the late Joseon Korea. Jinin was a messianic figure who was appointed to fulfil a prophecy to collapse the Yi dynasty in the near future. The participants in rebellion against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popular religious movements had taken jinin as their symbolic leader.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the myth by focussing on its awareness of place and space. It was related to the political feng shui 風水 concept 'the energy of regal power(wang gi 王氣).' The capital city was regarded as the place in where the energy was indwelling. The apocalyptic thought in premodern Korea asserted that the energy would be exhausted, and the founder of the new dynasty would take possession of the other place where had abundant energy. The books of prophecy(dochambigi 圖讖秘記) popularized the myth, and it formed a eschatological mentality after 17-18th centuries. The latter half of the paper analyses several types of cases of rebellions and religious movements which the prophecy was magnified. The paper concludes that there were two cognitive maps in the culture of late Joseon period. While the official mapping of the state sacralized the capital city and royal authority, the revolutionary mapping of the rebels denied the dominant topography and suggested various spatial strategies.

Keywords: Korean religion, messianism, cognitive map, Jeonggamrok,
jinin of island